

# 對象과 Tractatus

李 榮 哲

Wittgenstein철학의 前後期를 통하여 변함없이 유지되었던 신념중의 하나는, 철학이 할 일은 言語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개념을 시정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T. 4.0031, BB p.27, PI 109. & 119). 실로 대부분의 철학적 문제는 우리 言語에 대한 그릇된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T 4.003, BB pp.25-27 & 43-44, PI 110 & 111). Wittgenstein에 의하면 이러한 그릇된 개념은 日常言語의 부주의한 사용에서 형성된다(T3.324, Moore pp 273-4, PI11&12) 예를 들면 ‘Die Rose ist rot.’ ‘Zwei mal zwei ist vier.’ ‘Es ist kein Gott.’와 같은 문장들에서 ‘ist’라는 동일한 표현은 서로 다른 의미로(첫번째의 ist는 連辭, 둘째는 同一함을, 셋째는 存在를 나타냄) 쓰이고 있지만 外見上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다.(T3.323, PG p.53, PI558) 말하자면 일상언어에서는 서로 다른 symbol도 동일한 기호로써 표현되고 또 동일한 symbol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일상언어의 syntax는 ‘red is higher than green’이니 ‘the Real, though it is an *in itself*, must also be able to become a *for myself*’니 하는 등의 무의미한 擬似文章(pseudoproposition)의 구성을 방지하지 못한다(RLF p.31). 이처럼 일상언어의 애매한 사용에서 오는 혼란을 막기 위한 Wittgenstein의 방안은 모두가 알다시피 前後期가 다르다. 그의 後期철학의 주장하는 바는, 言語表現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세심히 관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전체적 ‘生活形式(Lebensform)’의 일부분으로서의 언어행위에서 언어표현들이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반하여 그의 前期 Tractatus의 방법은——後期에서 Wittgenstein이 비판한 것이었지만(cf. PI60)——論理的 分析이다. Tractatus에 의하면 일상언어의 애매성은 일상언어의 숨겨진 논리적 구조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에서 생겨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숨겨진 논리적 구조를 分析에 의하여 밝혀내야 한다. 그에 의해서 우리는 언어의 실제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제의 의미가 명백히 드러나는 언어는 Tractatus에 의하면 논리적 syntax를 따르는 언어이다(T3.325). 이러한 언어에서는 일상언어에서

와 달리<sup>1)</sup>, 서로 다른 symbol들에 같은 기호를 사용하거나 또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기호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하는 따위의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Ibid.)

Tractatus에 의하면 言語를 분석해나가면 우리는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命題——이를 그는 原子命題라 부른다——들에 도달하게 된다(T4.221). 이 原子命題는 명제로서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것으로 그 구성성분들 또한 더 이상 분석될 수 없는 기호들——이를 그는 이름들이라고 하였다——로 이루어져 있다(T4.22). 이러한 원자명제나 이름들은 경험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에 도달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경험적으로는 예를 들 수 없다<sup>2)</sup>) 命題의 분석이 논리적으로 요청하게 되는 바의 것이다. Wittgenstein에 있어서 分析의 개념은 Russell과 같은 것으로서 文脈的 定義(contextual definition)<sup>3)</sup>와 相通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어떤 명제 속의 표현은 그 명제가 분석되어 나타나는 보다 단순한 명제들 속의 표현들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어떤것을 나타낼 수가 있다. 즉 원래의 명제 속에 포함된 표현의 의미는 그 명제가 분석되어 나타나는 보다 단순한 명제들 속의 표현들의 의미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이다(T3.24 & 3.261).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 원래의 표현(A라고 하자)을 정의한 표현들(A<sub>1</sub>이라고 하자)이 다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라면 A<sub>1</sub>의 의미는 그를 정의하는 또 다른 보다 단순한 표현들(A<sub>2</sub>라고 하자)의 의미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에 더 이상 정의되지 않으며 어떤 것을 직접 指示함으로써 의미를 가지는 표현——즉 Wittgenstein이 이름이라 부르는 것——이 없다면 A의 의미는 A<sub>1</sub>에 의존하고 A<sub>1</sub>의 의미는 A<sub>2</sub>의 의미에, A<sub>2</sub>는 A<sub>3</sub>에 이렇게 무한히 계속됨으로서 A의 의미는 결국 아무것도 지시하지 않는 것이 된다. 그러나 어떤 일상적 표현이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분명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일상적 표현들이 의미를 가지는 한에 있어서 分析을 사용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을

1)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Wittgenstein이 말하는 논리적 Syntax에 따르는 언어가 Russell이나 Carnap등이 잘못 해석하였듯이 일상언어와 동떨어진 어떤 理想言語라는 것은 아니다. Wittgenstein자신의 비유를 빌어말한다면(RLF p. 33) 이러한 언어는 어디까지나 일상언어와 투영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分析的 방법을 통하여 일상언어의 논리적구조가 분명하게 비쳐지는 화면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일상언어가 애매하게 쓰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논리적 분석이 보여주는 바는 일상언어가 있는 그대로 논리적으로 완전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T5.5563, 그리고 이러한 점은 후기에까지도 변함없는 신념으로 보인다 cf. PI 98) 그러므로 Wittgenstein이 Tractatus에서 마치 일상언어를 떠나 어떤 이상언어를 구축하려고 한 것 처럼 말하는 一角의 해석은 전혀 촛점을 벗어난 것이었다고 하겠다.

2) cf. Malcolm p. 86

3) Black p. 111, 분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A. Kenny [ I ] Kapitel 5

직접 指示하며 동시에 그 자신은 다른 표현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표현 즉 이름들만으로 이루어진 原子命題에 도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T4.221, cf. NB 9.5.15)

그런데 Tractatus에 의하면 이름만이 단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를 Wittgenstein은 對象(Object)이라 하였다(T3.203)——도 역시 단순한 것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한다(T2.02). 對象들이 단순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世界의 實體(substance)를 이루기 때문이다(T2.021). 그러나 世界의 實體는 왜 復合的인 것일 수 없는가? Wittgenstein에 의하면 세계의 實體라 하는 것은 우연적 事實(what is the case)에서 독립해서 존속하는 것이어야 한다(T2.024). 그러나 復合的인 것은 그 부분들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안이루어짐에 따라 그 존재가 결정되는 우연적인 것이다. 부분들의 관계는 변할 수 있는 것으로 恒存的이 아니기 때문이다(cf. T2.0271). 따라서 세계의 實體로서의 對象은 自身 속에 아무런 부분도 포함 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단순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처럼 절대적으로 단순한 세계의 實體(對象)가 存在한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Tractatus의 實體의 존재증명은 전통적 방법과 달리 의미론에 근거한 방식임에 특색이 있다. 그의 증명은 다음과 같다. 즉 만일에 세계의 實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떤 명제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명제가 眞임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T2.0211). 그러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세계에 대한 그림(眞 또는 僞인)을 그릴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이다(T2.0212). 그런데 Tractatus에 의하면 명제의 본질은 그것이 實在의 그림이라는 점에 있다(T4.01, 4.011 & 4.06) 그러므로 세계의 實體는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를 좀더 자세히 설명해 보기로 하자. 만일에 世界의 實體가 없다면 世界는 모두 우연적인 復合體로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만일 세계에 실체가 있다면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그것은 단순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계에서는 어떤 명제이건 간에 그 속에는 어떤 復合體를 나타내는 표현——이를 A라 하자——을 포함하게 된다. 명제가 의미(sense)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속에 포함된 표현들도 역시 의미(meaning)<sup>4)</sup> 를 가져야 하므로 이제 표현 A도 역시 의미를 가져야 한다. 이름의 존재증명에서 본 바와 같이 A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A를 정의하는 보다 단순한 表現들 A<sub>1</sub>도 의미가 있어야 한다. 다시 A<sub>1</sub>의 의미는 A<sub>2</sub>의 의미에, A<sub>2</sub>는 A<sub>3</sub>에, 이처럼 의미의 의존관계는 무한히 계속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에 의해서 A, A<sub>1</sub>, A<sub>2</sub>……가 나타내는 것은 모두 복합체이고 또 Wittgenstein의 분석개념에 따르면 복합체를 나타

4) 이름(name)은 meaning만 가지고 있고 sense는 가지고 있지 않다. sense는 명제만이 가진다. 이러한 구별에 대해서는 Anscombe [II] Introduction

내는 표현은 항상 보다 단순한 표현으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를 포함하는 命題(이를 P라 하자)의 의미를 알려면 그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보다 단순한 표현들을 포함한 명제들 ( $P_1$ )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P_1$ 의 의미를 알려면 다시 그것을 분석하여 나타나는 명제들 ( $P_2$ )의 의미를 알아야 하고 이러한 과정은 끝이 없게 된다. 그러나 이렇게 되어서는 어떠한 명제도 그 의미가 세계와 관련되질 못하고 언어 속에서만 맴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언어로서 결코 세계에 대하여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제 P가 세계에 관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무한 과정의 어느 단계에선가 —— $P_n$ 이라 하자——  $A_n$ 이란 表現이 나타내는 復合體가 존재한다는 다른 명제를 추가함과 동시에 그 명제가 眞임이 밝혀져야만 하게 된다(T2.0211)<sup>5)</sup>. 그러나 이처럼 어떤 명제의 의미가 다른 명제의 眞에 의존한다고 하는 것은 곧 그 어떤 명제의 의미를 결국 세계와 대조해서만 알 수 있다는 셈이 된다. 이러한 결론은 분명 불합리하다. 우리는 어떤 명제의 의미를 그 명제가 표현하는 事實의 成立여부와 상관없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T4.021-4.022 & 4.026). Wittgenstein에 있어서 이러한 불합리한 결론은 곧 명제가 세계에 대해 그림을 그릴 수 없다는 것과 같다(T2.0212). 왜냐하면 그의 모사이론이 설명하고자하는 중심문제 중의 하나는 우리가 事實의 成立여부와 상관없이 명제의 의미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cf. T4.01-4.021 & T4.024) 따라서 世界의 實體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불합리한 것이었다. 다시말해 實體는 단순한 것으로서 存在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實體의 존재가 증명되었다 치더라도, 實體가 존재한다면 한 명제의 의미는 다른 명제의 眞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함은 어찌서인가? 그 이유는 對象이 존재한다는 것은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necessary)인 것이기 때문이다. 대상이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논리학을 이해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경험으로서 그러나 이는 復合體의 존재경험과 같은 의미의 경험적인 것은 아니다(T5.552. 그리고 이의 해석에 대해서는 Anscombe [Ⅱ] p.165). 實體가 있게되면 어떤 명제의 분석은 이름들만으로 이루어진 原子 命題들에 도달하게 되고 이 이름들은 세계의 실체인 對象들을 指示하게 되는 것인데 이 이름들과 對象들 사이의 指示 관계는 復合體의 경우와 달리 경험적이 아니라 필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름이 指示하는 對象이 存在한다는 또 다른 명제는 필요가 없게 된다. 만일 그런 명제를

5) Miss Ishiguro (pp.41~43)는  $P_n$ 의 의미가  $A_n$ 이 표현하는 복합체가 존재한다는 명제의 眞에 의존하지 않고 그 의미에 의존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 자체는 맞지만 이것은 T2.0211의 가정 즉 實體가 없다는 가정에서,  $P(P_n$ 이아닌)의 의미가 다른 명제의 眞에 의존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될 수는 없다. cf. Pears pp.214~215

만든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疑似命題(pseudo-proposition)일 뿐이다(T4. 1272).

이상에서 Tractatus에서의 이름과 對象의 존재증명을 살펴 보았다. 이에 의해 밝혀진 對象의 성격은 첫째로 世界の 實體로서 단순하며 둘째로 이름의 意味이며 셋째로 논리학조차 필연적으로 전제하는 바의 것(T5. 552)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Tractatus의 對象은 Tractatus의 존재론과 의미론과 논리학을 떠받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할 수 있겠다. 실로 Tractatus의 체계는 對象들에 의해 떠받쳐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Tractatus의 체계가 무너지면서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Tractatus의 對象이 그와같은 중요한 역할을 모두 감당해 낼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오히려 對象에게는 부당한 무거운 짐이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ractatus의 對象을 둘러싼 대부분의 해석들(예를 들면 名目論的 해석과 實在論的 해석)은 이러한 점을 看過하고 다만 對象을 Tractatus의 틀 속에 무리하게 맞춰 넣으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이 결코 Tractatus의 對象의 올바른 해석에 다가설 수 없음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하에서 나는 Tractatus의 對象에 부과된 이러한 부당한 짐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對象의 해석에 관련이 있음을 환기시킴으로써 Tractatus의 對象해석에 관한 구구한 논쟁을 해소시키고자 한다.

그에 앞서 우리는 우선 對象해석에 관계되는 Tractatus의 귀절들을 좀 더 모아 볼 필요가 있다. 對象의 해석은 필연적으로 이들과 관련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對象은 단순한 것으로 (T2.02) 우연적 사실에 관계없이 恒存하는 (T2.024 & 2.027) 世界の 實體이다 (T2.021). 즉 아무리 다른 세계라도 그 세계들은 공통적인 形式(form)을 지녀야 하는데(T2.022), 이 形式을 이루는 것이 對象들이다(T2.023), 이러한 對象들은 아무 特色이 없으며(colourless)<sup>6)</sup> (T2.0232) 오직 이름 붙일 수 있을 따름이다(T3.221). 對象은 이름의 의미(meaning)이다(T3.203). 對象 자체는 아무 특색이 없지만 이들의 배열은 物質的 性質<sup>7)</sup>(material property)을 만들어 낼 수 있다.

6) 이 해석은 대상에 관한 명목론적 해석을 비판할 때 논하기로 한다.

7) 物質的 性質은 Black (pp. 63~64)과 같은 사람이 생각하듯이 外的 性質(external property)과 같은 것이 아니다. 外的 性質은 대상이 소유하는 것이지만(cf. T2.01231) 物質的 性質은 대상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物質的 性質은 대상들의 배열이 나타내는 것이다(T2.0231). Hochberg는 그 두성질을 구별하였지만 外的 性質을 '붉음'과 같은 성질로 보았다. 그러나 外的 性質은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실제로 결합하였음을 나타낼 뿐 그 대상이 붉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대상이 만일에 外的 性質로서 '붉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면 우리는 記述에 의해서 그 대상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T2.02331) 그러나 대상은 특성이 없다(T2.0232).

物質的 性質은 對象들의 배열에 의해서만 비로소 形成될 수 있는 것이다(T2.0231). 對象은 實體로서 모든 가능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동시에 對象 홀로 나타나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對象과의 연결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독립적이다(T2.0122). 다시 말해서 對象은 본질적으로 事態(Sachverhalt)——事態란 對象들의 연결체를 말한다(T2.01 & 2.0272)——의 要素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T2.011). 이것은 이름의 경우도 같다. 이름 또한 原子命題의 文脈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T4.23). 原子命題는 事態의 存立을 주장(assert)하며(T4.21) 이러한 原子命題나 事態는 각각 다른 原子命題와 事態에 대하여 독립적이다(T2.061 & T4.211). 즉, 한 事態의 存立·非存立에서 부터 다른 事態의 存立·非存立을 추론해낼 수 없으며(T2.062) 어떤 두 原子命題의 합도 tautology나 contradiction을 이룰 수 없다(T6.3751).

그러나 이와 같이 對象에 관련된 많은 발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對象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물어 볼 때 우리는 對象에 관하여 별로 아는 바가 없다는 느낌을 금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Tractatus의 對象에 관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란 단지 對象이 世界の 實體이며 그것이 命名된다는 것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의 실체로서의 對象이란 것이 단지 個體(particular)인가 아니면 성질이나 관계 같은 普遍者(universal)도 포함되는가를 따져보는 소위 名目論과 實在論的 해석의 대립도 생겨나게 된 것이다. 名目論的 해석이니 實在論的 해석이니 하는 것은 사실상 Tractatus의 對象이 짊어 져야 하는 짐의 한쪽 측면 밖에 보지 못한데서 일어나게 된 것이 밝혀지겠지만 Tractatus의 對象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이 논쟁을 검토 비판해보는 것도 무익하지는 않을 것이다.

먼저 實在論者들<sup>8)</sup>의 주장을 살펴보자. 세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Tractatus에서 原子命題는 이름들만으로 이루어져 있고(T4.22) 原子命題는  $fx$ ,  $\phi(x,y)$ 등과 같이 표기 하므로(T4.24)  $f$ 나  $\phi$ 같은 술어기호와 관계기호도 이름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原子命題의 요소는 모두 對象과 대응관계를 이룬다고 하였으므로(T4.0311 & 4.04)  $f$ 나  $\phi$ 가 나타내는 성질과 관계도 결국 對象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性質의 예로서 그들은 보통 ‘붉음’과 같은 sense data를 든다. 그들은 또한 여기에서,  $f$ 나  $\phi$ 에 의해 對象이 指示되기 때문에  $fx$ ,  $\phi(x,y)$ 와 같은 原子命題가 나타내는 事態 속의 對象의 수는 각각 2개 3개라고 주장한다.

이와같은 그들의 주장에 접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점에서 비판

8) Stenius, Stegmüller, Allaire등

할 수 있다. 첫째로 Tractatus에서 性質과 관계를 對象과 동일시하는 것은 다른 난점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命題函數  $fx$ 라는 것은 Frege와 같이 'x는 f라는 성질을 가진다'<sup>9)</sup>의 뜻으로 쓸 수 있고 그러므로 예를 들어  $fa$ 라는 命題는  $a$ 가 指示하는 對象이 f라는 성질을 가짐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Tractatus에서 이름  $a$ 가 指示하는 것은 오직 단순한 對象임에 주의해야 한다. Tractatus에 의하면 對象은 內的 性質과 外的 性質을 가진다 (T2.01231). 內的 性質이라 함은 對象이 어떤 可能한 事態들에 나타날 수 있음을 말하고 外的 性質이라 함은 對象이 실제로 어떤 事態 속에 나타났음을 즉 어떤 특정의 대상들과 결합하여 있음을 말한다. 그러므로  $fa$ 라는 명제는 Tractatus에서 정확히 말한다면  $a$ 가 指示하는 對象이 f에 의해 표현된 外的 性質을 가진다는 말이다. 따라서 實在論者들이  $fa$ 에서 f가 나타내는 성질이 또 하나의 對象이라고 하는 것은 外的 性質이 또 하나의 對象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fa$ 라는 명제는  $a$ 가 指示하는 對象이 어떤 특정 대상들과 결합하여 있다는 것을 나타낼 뿐 그 外的 性質 자체가 또 하나의 對象이라는 말은 아니다. 만일에 外的 性質 자체가 또 하나의 對象이 된다면 원래의 對象과 이 새로운 對象이 결합되어 있다는 새로운 外的 性質이 생기고 이는 또 다시 새로운 對象으로서 원래의 對象과 결합하여 또 다시 새로운 外的 性質을 만들어 내고 이러한 과정은 끝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이루는 결합을 새로운 또 하나의 對象으로 보는 實在論者들의 주장은 오류이다. 둘째로 原子命題와 事態 사이의 isomorphism을 설명하기 위해서  $fx, \phi(x,y)$ 라는 명제함수가 나타낼 수 있는 事態속의 對象의 수가 각각 2개와 3개 밖에 될 수 없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은 함수표현의 성질과는 근본적으로 상치된다는 점이다. 일상언어에서 예를 들어 'x는 남자이다'나 'x는 남자이고 총각이며 회사원이다'와 같은 표현은 모두  $fx$ 로 나타낼 수가 있다. 이것은 原子命題의 경우에서도 같다. 즉 예를 들어  $a, b, c, d$  4개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원자명제에서 가령  $a$ 를 변수  $x$ 로 대치함으로써 우리는 명제함수  $fx$ 를 얻게 되는 것이다(cf. T3.313) 그러므로 Tractatus에서  $fx$ 가 나타내는 事態는 2개의 대상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2개에서 부터 무한히 많은 對象을 포함할 수도 있다.<sup>10)</sup> 셋째로 Miss Ishiguro가 지적한 바이지만 性質이 對象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세계 내에 있는 어떤 性質(實在論들이 예로 드는 단순한 sense data와 같은 것)인 限 Tractatus에서 對象에 요구하는 바 모든 可能한 世界에 나타날 수가 없다는 점이다 sense data와 같은 성질은 이 세계에 한정되어질 뿐 아니라 sense data를 경험하는

9) Frege p.129

10)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Anscombe [I], & [II] Ch.7 그리고 Pitcher pp. 124. ~130

사람에게 한정되기 때문이다.<sup>11)</sup>

다음에 名目論者들<sup>12)</sup>의 주장을 들어보자, 그들에 의하면 Tractatus에서 物質的 性質은 對象들의 배열로 비로소 생기고 (T2.0231) 對象들 자체는 無色(colourless)하다고 했으므로 (T2.0232) 對象은 色과 같은 性質이 없는 個體(particular)——예를 들면 物質的 點(material point)과 같은 것<sup>13)</sup>——에 限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fx$ ,  $\phi(x,y)$ 와 같은 명제함수에서  $f$ 나  $\phi$ 는 實在論者들의 주장과 같이 對象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實在論者들의 기우와 달리  $f$ 나  $\phi$ 가 對象을 指示하지 않는다고 해서 原子命題와 事態 사이의 對應 관계가 설명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fa$ 나  $\phi(a,b)$ 와 같은 명제는 소위 ‘可視的 表記法(perspicuous notation)’이 아니기 때문이다. 可視的 표기법 (또는 논리적 syntax를 따르는 표기법)에서  $fa$ 나  $\phi(a,b)$  같은 명제는 예를 들어 ‘abcd’나 ‘acdeb’와 같은 것으로 표현되고 여기서 原子命題의 요소들과 事態의 요소들 사이의 對應 관계가 드러난다고 올바르게 지적 한다.<sup>14)</sup> 그런데 여기에서 名目論者들은  $f$ 가 나타내는 바는 可視的 표기법에서 대상  $a$ 가 대상  $bcd$ 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바르게 지적하지만 동시에  $a$ 가  $bcd$ 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예를 들면 ‘ $a$ 가 붉다’와 같은 것을 표현한다고 주장한다.<sup>15)</sup>

名目論者들의 주장도 세가지 점에서 비판할 수 있는데 첫째로 T 2.0232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이다. 영어나 독일어의 ‘colourless’나 ‘farblos’란 말은 모두 ‘색이 없다’는 뜻도 되지만 ‘아무 구별되는 특색이 없다’는 뜻도 된다. 그러나 T 2.0232의 전후 문맥에서 볼 때 여기의 ‘colourless’는 색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아무 구별되는 특색이 없다는 뜻이다. 이는

11) Ishiguro p.47

12) Copi, Anscombe, Griffin, Pitcher 등

13) Griffin Ch. xi: Pitcher Ch. 5 특히 pp.130~138

14) Copi는  $\phi(a,b)$ 와 같은 명제가 可視的 表記法으로 바뀌더라도 그 요소는 2개 밖에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Anscombe [I]이 지적했듯이 잘못이다. 名目論과 實在論을 비판하는 입장인 Ishiguro (p.28) 조차,  $fa$ ,  $g(a,b)$ 란 명제들이 나타내는 事態의 요소는 각각 1개, 2개라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Wittgenstein이 지니고 있던 난점은 오직 한개의 대상만을 포함하는 限界事態를 설명하는 일이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름과 命題를 본질적으로 구분하는 Tractatus의 입장에서 (cf. T3.14-3.144) 이름과 명제가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봐야한다. 그리고 Ishiguro (p.41) 처럼  $fa$ 는 예를 들면 ‘ $v$ ’ ( $a$ 를 거꾸로 쓴 것)  $\phi(a,b)$ 는 ‘ $\frac{a}{b}$ ’로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Tractatus의 모사이론에서 그와

같은 표기법은 본질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럼이 어떤 事態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論理的 성격에서이지 空間的 (spatial) 이유에서가 아니기 때문이다(cf. T2.182)

15) 특히 Pitcher p.127



그 다음 T 2.0233과 T 2.22331에서 對象의 구별에 관해 논하고 있음과 관련하여 볼 때 명백하다. 즉 어떤 두 對象은 그 外的 性質을 제외한다면 둘의 內的 性質이 다르다는 것으로 밖에 구별이 안된다(T 2.0233). 그러나 對象이 內的 性質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다른 對象과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할 뿐이며 우리가 바로 구별할 수 있는 특색을 對象들이 가졌다는 말은 아니다. 만일에 그러한 특색을 對象들이 가진다면 그러한 특색은 記述에 의하여 바로 구별할 수 있고 또 그 對象 자체를 우리는 指示할 수 있을 것이다(T 2.02331). 그러나 對象을 홀로 指示할 수 없다는 것은 對象이 그러한 특색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對象의 外的 性質이란 것은 다른 對象과 실제로 결합하여야만 비로소 대상이 가지는 성질이다. 그러므로 對象들 자체는 아무런 구별할 수 있는 특색이 없는 것이다(T2.0232). 어떤 구별할 수 있는 물질적 성질 (material property)은 對象들의 배열에서만 비로소 생기게 된다(T 2.0231). 따라서 명목론자들과 같이 T 2.0232를 對象들이 色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對象들이 個體에 限한다는 주장으로 넘어간 것은 부당하다고 할 수 있다. 對象에 특색이 없다는 것이 곧 對象이 個體라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T 2.0232는 名目論 實在論의 논쟁에서 일단 중립을 지킨다고 보는 것이 공정하다. 둘째로 *fa*라는 명제에서 *f*가 *a*와 *bcd*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은 올바른 지적이지만 *f*가 붉음과 같은 物質的 性質을 표현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對象 *a*가 對象들 *b, c, d*와 결합하여 있다는 것은 對象 *a*의 外的 性質로서 對象 *a*에 속하는 것이지만 (cf. T2.01231) 붉음과 같은 물질적 성질은 對象에 속하는 성질이 아니라 對象들의 배열에 속하는 성질이기 때문이다. (T2.0231) *fa*를 'a가 f라는 성질을 가진다'로 해석할 때에 Tractatus에서 이 *f*는 對象의 外的 性質이지 物質的 性質이 아니다 그러므로 *a*가 *bcd*와 결합하여 있다는 것이 *a*가 예를들면 붉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하는 주장은 對象이 가지는 外的 性質과 對象들의 배열로서 비로소 이루어지는 物質的 性質을 혼동한 것이다. 셋째로 그들 주장과 같이 對象이 個體에 한한다고 하더라도 個體들이 時空的인 것인 한 그것들은 오직 이 세계에만 속하고 모든 可能的 세계에 속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sup>16)</sup> 왜냐 하면 時空的 個體는 아무리 단순하다 하여도 여러 性質의 例化(instantiations)로서 예를 들면 수소는 원자량 1.0080으로 가장 가벼운 원소이며 공기에 대한 비중은 0.06952이라는 등의 성질을 가진다. 만일에 수소가 이러한 성질들 중의 어느 하나라도 결하거나 또는 수소가 가지지 않는 성질을 가진다거나 하면 그것은 다만 수소가 아닐 따름이다. 그러므로 이 세계의 어떤 時空的 對象도 어떤 다른 상상적 세계의 요소가 될 수

16) Ishiguro p. 47

없다. 특정한 時空的 對象의 정체(identity)는 그것의 '可能性'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sup>17)</sup>

이상에서 Tractatus의 對象해석에 관한 實在論者와 名目論者의 논쟁을 검토하여 보았는데 이에 의해 나타난 바는 첫째 그들의 論理로는 Tractatus의 對象이 물질적 점과 같은 個體뿐이라거나 또는 sense data와 같은 보편자도 포함된다거나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고 둘째 對象이 個體이거나 普遍者이거나 그러한 주장은 對象에 관한 Tractatus의 다른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sup>18)</sup>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對象이 物質的 點과 같은 것들 뿐이라거나 sense data와 같은 性質도 포함된다거나 하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名目論者와 實在論者들에 공통된 전제는 Tractatus의 對象들이 世界(보통 의미의 客觀的 外界)에 存在하는 것으로서 이름을 지니고 있는 것(bearer of name)이라고 하는 점이다. 이름을 지니고 있는 世界의 실체로서 世界內에 實在하는 것이기 때문에 對象은 個體이든가 또는 普遍者도 포함되든가 둘 중의 하나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다.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그들과 같이 Tractatus의 '世界'를 客觀的 外界로 보고 對象을 '이름의 保有者(bearer of name)'로서만 본다면 名目論과 實在論의 논쟁 같은 것은 피할 길이 없다<sup>19)</sup> 그러나 Tractatus의 '世界'는 보통 의미의 客觀的 外界는 아니다. Tractatus의 전반부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인상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Tractatus의 '世界'는 분명히 '나의 世界'이다(T 5.62). Tractatus의 '世界'는 내가 죽어 없어져도 여전히 實在하는 그러한 外界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17) Ibid p. 47

18) Tractatus의 對象이 物質的 點과 같은 個體뿐이라는 주장과 sense data 같은 普遍者도 포함된다는 주장이 모두 난점을 가지고 우열을 가릴 수 없음에 대해서 Keyt[Ⅱ].

19)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서만 본다면 우리는 Tractatus 전후의 문헌으로 부터 Tractatus의 對象은 성질이나 관계도 포함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즉 NB에 의하면 '성질이나 관계도 역시 對象이다'(16.6.15)라 하고 있으며 또 RLF에서 Wittgenstein이 'This is red & This is blue'가 Contradiction이라는 Tractatus(6.3751)의 잘못된 생각은 Red나 Blue가 그 degree로 분석된다고 잘못 생각한 때문이었다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Tractatus의 對象이 Red의 degree나 Blue의 degree 같은 단순한 性質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다만 Wittgenstein은 그와 같은 性質을 마치 個體처럼 취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Pears p. 215), 그러나 '對象들이 物體 같은 것(something thing-like)인가 또는 性質 같은 것인가 또는 관계인가를 묻는 것은 무분별한 것이다'(Wittgenstein und der Wiener Kreis p. 43, Kenny [Ⅱ] p. 7에서 재인용)라는 Wittgenstein 자신의 말은 우리가 Tractatus의 對象을 客觀的 世界에 存在하는 이름의 保有者(bearer of name)로서만 파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동시에 종말에 이르는 세계이다(T 6.431). 世界の 限界는 곧 나의 言語의 限界이다(T 5.62). 그러므로 Tractatus의 ‘世界’는 客觀的 實在의 外界라기 보다 의미(sense)의 총체로서의 世界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론적 世界를 이루는 對象들도 역시 (이름의) 의미로서의 對象들이다(T 3.203). 그러나 이름의 의미로서의 對象은 內延的(intensional)인 개념<sup>20)</sup>이기 때문에 物質的 點과 같은 個體도 아니고 sense data와 같은 성질의 普遍者도 아니다. 그런데 Tractatus에 있어서 對象은 이름의 의미이면서 동시에 이름의 所有者이다. 즉 이름의 의미는 그 이름을 保有하는 對象인 것이다. 실로 모든 문제는 여기서 부터 생긴다고 할 수 있다. 이름의 所有者인 實體인 한에서 對象은 個體이나 普遍者이나는 논쟁을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동시에 對象은 이름의 의미로서 內延的인 것이기 때문에 物質的 點과 같은 個體나 sense data 같은 普遍者가 될 수 없는 운명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名目論者와 實在論者의 논쟁은 對象의 이 양면적 운명을 한 쪽에서만 파악한데서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Wittgenstein의 후기에서 밝혀진 바이지만 對象의 이 양면적 운명은 對象이 반드시 감수해야 할 운명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對象에 부당히 부과된, 對象이 결코 질 수 없는 이중적 짐이었다. 즉 對象은 이름의 의미이면서 동시에 이름에 대응되는, 이름의 所有者일 수가 없는 것이다 (PI 40 & 55). 이름의 의미와 그 이름을 가진 것은 같지가 않다. 이름의 소유자는 없어지더라도 이름의 의미는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물론 Tractatus에서도 Wittgenstein이 이러한 차이를 전혀 몰랐다고 볼 수는 없다<sup>21)</sup> T3.24에서 Wittgenstein은 어떤 命題 속에서 復合體가 언급될 때에 그 復合體가 存在하지 않더라도 그 命題는 無意味한 것이 아니라 다만 僞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말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Tractatus에서 復合體를 언급하는 表現은 이름이 아니라 記述(description)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記述의 경우와 달리 이름이 對象을 指示할 때 만일 그 이름을 保有하는 對象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름은 의미가 없다. 그것은 이름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Tractatus의 對象이 이름의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이름의 所有者로서 변함없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T 2.027). 이러한 요구는 Tractatus와 같이 분석적 방법을 사용할 때 필연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Wittgenstein은 그의 후기에서

20) Ishiguro p. 40

21) Miss Ishiguro도 이점을 지적한다(p. 40) 그러나 그녀는 이점을 너무 강조하는 나머지 마치 Tractatus에서 Wittgenstein이 이름의 의미를 그 이름의 소유자와 동일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별로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Tractatus와 같은 분석적 방법을 포기함으로써 Tractatus의 對象에서 부당한 짐을 덜어 주었지만 동시에 그것은 절대적으로 단순한 Tractatus의 對象과 같은 것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말하자면 Tractatus의 對象이 짊어진 짐을 덜어준 것은 對象의 해방이라기 보다 對象의 소멸이었고 이는 곧 Tractatus 체계의 붕괴라는 결과로 이르게 되었다.<sup>22)</sup>

참 고 문 헌

( [ ] 속은 본문 속에서 사용된 略號 )

**Wittgenstein, L.**

[T]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C.K. Ogden번역 (RKP, 1922)과  
D.F. Pears & B.F. McGuinness번역 (RKP, 1961)

[NB] Notebooks, 1914—1916, Blackwell, 1961

[RLF] "Some Remarks on Logical Form", Copi & Beard pp. 31~37에  
재수록

[PG] Philosophische Grammatik, Blackwell, 1969

[BB] The Blue and Brown Books, Blackwell, 1958

[PI]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Blackwell, 1953

Allaire, E.B., [ I ] "Tractatus 6.3751", Copi & Beard (pp. 189~193)  
에 재수록

\_\_\_\_\_, [ II ] "The 'Tractatus': Nominalistic or Realistic?," Copi  
& Beard (pp. 325~341)에 재수록

Anscombe, G.E.M., [ I ] "Mr. Copi on Objects, Properties and Relations in the Tractatus", Copi & Beard (p. 187)에  
재수록

\_\_\_\_\_, [ II ] An Introduct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Hutchinson, 1959

Black, M., A Companion to Wittgenstein's Tractatus, Cambridge, 1964

Bogen, J., Wittgenstein's Philosophy of Language, RKP, 1972

Copi, I.M., "Objects, Properties and Relations in the Tractatus," Copi  
& Beard (pp. 167~186)에 재수록

Copi & Beard, Essays on Wittgenstein's Tractatus, RKP, 1966

22) 對象 또는 이를 포함한 原子命題의 소멸과 Tractatus의 붕괴의 관계에 대해서는 Hacker Ch. IV & Kenny [ I ] Kapitel 6

- Daitz, E., "The picture Theory of Meaning", Copi & Beard (pp.115~131)에 재수록
- Evans, E., "Tractatus 3.1432" Copi & Beard (pp.133~135)에 재수록
- Frege, G., *Conceptual Notation and related articles*, Oxford, 1972
- Griffin, J., *Wittgenstein's Logical Atomism*, Oxford, 1964
- Hacker, P.M.S., *Insight and Illusion*, Oxford, 1972
- Hochberg, H., "Material Properties in the Tractatus", *Essays on Wittgenstein* (ed. by E.D. Klemke) pp.120~122
- Ishiguro, H., "Use and Refernce of Names", *Studies in the Philosophy of Wittgenstein* (ed. by P. Winch, RKP, 1969) pp.20~50.
- Kenny, A., [ I ] *Wittgenstein*, Suhrkamp, 1974(독역본)
- \_\_\_\_\_, [ II ] "The Ghost of the Tractatus", *Understanding Wittgenstein* (Macmillan, 1974) pp.1~13
- Keyt, D., [ I ] "Wittgenstein's Notion of an Object", Copi & Beard (pp.289~303)에 재수록
- \_\_\_\_\_, [ II ] "Wittgenstein's Picture Theory of Language", Copi & Beard (pp.377~392)에 재수록
- \_\_\_\_\_, [ III ] "A New Interpretation of the Tractatus Examined," *Philosophical Review* (1965) pp.229~239
- Kutschera, F.v., *Philosophy of Language*, D. Reidel, 1975
- Malcolm, N., *Ludwig Wittgenstein-A Memoir*, Oxford, 1958
- Moore, G.E., "Wittgenstein's Lectures in 1930—33", *Moore의 Philosophical Papers* (Allen & Unwin, 1959) pp.252~324에 재수록
- Pears, D., "Representation in Wittgenstein's Tractatus", *Forms of Representation* (ed. by B. Freed et al., North-Holland, 1975) pp.203~219
- Pitcher, G., *The Philosophy of Wittgenstein*, Prentice-Hall, 1964
- Ramsey, F.P., "Review of 'Tractatns'", Copi & Beard (pp.9~23)에 재수록
- Rhees, R., "The Tractatus: Seeds of Some Misunderstandings" 그의 *Discussions of Wittgenstein* (RKP, 1970) pp.16~22에 재수록
- Russell, B., [ I ] *Logic and Knowledge* (ed. by R.C. Marsh), Allen &

Unwin 1956

\_\_\_\_\_, [Ⅱ] Tractatus의 Introduction

Sellars, W., "Naming and Saying", Copi & Beard (pp. 249~270)에 재  
수록.

Shwayder, D., "Wittgenstein's 'Picture Theory' and Aristotle," B.  
Freed et al. (eds.), Forms of Representation (North-  
Holland, 1975) pp. 161~188

Stegmüller, W., Hauptströmungen der Gegenwartsphilosophie, Kapitel  
XI, Kröner, 1969(제4판)

Urmson, J.O., Philosophical Analysis, Oxford, 1956